

송중기 “빈센조” 역대 가장 신나게 연기...전여빈, 호흡 1등”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 종영 화상 인터뷰

“악인들 처단, 더 세계했어도...결말 만족”

영화 ‘보고타’, 이달 말 국내서 촬영 재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신나게 연기했던 캐릭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 캐릭터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에서 주인공 ‘빈센조’를 연기한 배우 송중기는 “다 같이 재밌게 잘 놀았던 작품”이라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그는 3일 화상으로 진행된 ‘빈센조’ 종영 인터뷰에서 “이렇게 부담이 없었던 작품도 처음인 것 같다”며 “드라마 내용처럼 금가프라자 식구들인 배우들과 상당히 깊은 결속력이 생겼고 그런 의미에서 외롭지 않았고 부담도 거의 없었다”고 미소 지었다.

‘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를 그렸다. 송중기가 이탈리아 출신의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로, 배우 전여빈이 독종 변호사 ‘홍차영’으로 분했다.

지난 2일 방송된 최종회는 빈센조가 악당의 방식으로 빌런들을 심판하며 막을 내렸다. 악의 끝을 보여준 바벨그룹 진짜 회장 ‘장준우’(육태연)를 비롯해 그 조력자 ‘최명희’(김여진), ‘한승혁’(조한철)은 모두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처음 20부 대본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잔인하다’, ‘아니다’ 의견이 많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계 나가고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극약무도한 행동으로 악을 많이 행한 캐릭터를 그에 맞게끔 처단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결말에) 굉장히 만족해요.”

“액션 통쾌, 코미디는 아쉬워...PPL 논란, 실망 드러 사과”

처음 마피아라는 소재를 접하고는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생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기발하다고 생각

했다. 시놉시스의 기획 의도를 보고 작가님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울분이 바로 느껴졌고, 와닿았다. 매력 있게 소재를 잘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빈센조라는 인물이 한국 사회에서 지내는 모습을 이질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겉모습은 한국사람이지만, 완전히 이탈리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초반에 빈센조의 대사나 말투가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캐릭터를 표현하는 좋은 무거움처럼 느껴져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고민보다는 확신이 들어서 신나게 연기했죠.”

송중기는 ‘빈센조’에서 액션과 코미디를 오간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동작 위주보다는 감정 위주의 액션을 만들어주셔서 힘들진 않았다”며 “오히려 (액션이) 통쾌하고 재밌었다”고 말했다.

코믹 연기와 이탈리아어 연기는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그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코미디 대사와 이탈리아어 대사였다”며 “희극 연기가 최고난도 연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처음 해보는 장르이기도 했고 욕심이 많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어 대사도 좀 더 오랜 시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다”며 “계속 배우고 연습했다. 외국어 대사는 계속 부딪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빈센조’는 방송 중간에 중국 제품 간접광고(PPL)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극 중 빈센조가 인스턴트 비빔밥을 먹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이는 중국 브랜드 제품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복, 김치 등을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전통 음식인 비빔밥의 중국산 제품을 내보내야 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송중기는 “중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드라마 내적으로 완성도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며 “외적인 논란이 생겼으니 드라

마 자체의 매력으로 신뢰를 얻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 오히려 더 현장에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연 배우로 사과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의 케미는 전여빈...러브라인 적절하게 그려졌다”

송중기는 현장에서 ‘송반장’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촬영 분위기를 이끌었다. 극 중 금가프라자 사람들을 비롯해 다양한 케미를 선보이는데, 최고의 케미로는 홍차영 캐릭터를 맡은 배우 전여빈을 꼽았다.

그는 “전여빈 배우와 홍차영 캐릭터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며 “진짜 매력있다고 느낀 캐릭터였고, 같이 연기하면서 전여빈 배우나 홍차영 캐릭터 둘 다 정이 많이 들었다. 전여빈 배우와 호흡이 최고로 좋았다. 무조건 1등”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빈센조와 홍차영의 로맨스를 두고 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종회에서는 빈센조와 홍차영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키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러브라인을 두고 찬성과 반대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자체가 일단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로 만족했죠. 러브라인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20부 엔딩에서 빈센조와 홍차영이 재회하며 같이 낚지만, 마지막에 묘하게 다시 헤어지는 듯한 표정을 했거든요. 각자 자리에서 살면서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연기했어요.”

그는 드라마를 마친 현재 ‘빈센조’를 선택한 걸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고 했다. 다음에는 빈센조와 반대로 현실적인 악역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송중기에게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해준 작품이죠. 대부분을 처음 받았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의문이 들었어요. 촬영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이 있었죠. ‘내가 배우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이걸 왜 겁냈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해봤던 걸 하는 게 역시 최고의 재미를 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빈센조’ 시즌2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도 있다. 그는 “시즌2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한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시즌2 이야



기가 나온 것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이달 말부터 영화 ‘보고타’ 촬영에 다시 돌입한다. ‘보고타’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촬영이 어려워지면서 촬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보고타’는 1990년대 콜롬비아로 이민을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송중기는 “차기작은 아직 정한 건 없다”면서 “제작이 중단됐던 영화 ‘보고타’가 이번달 말부터 한국에서 촬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콜롬비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연배우로서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이혜리 주인공 확정

엄혹한 금주령 내려졌던 조선 후기 배경 퓨전 사극



KBS 2TV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주연 배우에 유승호와 이혜리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드라마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정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이전까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술과 금주령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금주를 단속하는 검찰과 술을 빚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다.

유승호는 입신양명을 위해 한양에 상경한, 능력 출중 사헌부 감찰 ‘남영’을 연기한다. 유승호는 ‘군주 - 가면의 주인’ 이후 4년 만에 사극 출연이다.

이혜리는 금주령의 시대, 백 냥 빚을 갚기 위해 술을 빚기 시작하는 가난한 양반 처자 강모 서로 변신한다. 귀티 나는 외모와 달리 돈 되는 일이라면 힘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드라마는 ‘닥터 프리즈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어셈블리’ 등을 선보인 황인혁 PD가 연출을 맡았다.

7인조 보이그룹 ‘블리처스’, 12일 데뷔...‘체크-인’

7인조 보이그룹 ‘블리처스’가 출사표를 던진다.

소속사 우조엔터테인먼트는 “블리처스가 오는 12일 첫 번째 EP 앨범 ‘체크-인’을 발매하고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3일 밝혔다.

그룹명은 ‘블리츠(Blitz)’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우리의 음악과 춤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미국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쓰이는 ‘잘 나가는 아이(공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은어 ‘블리처(Blitzer)’에서 착안했다. ‘팬들의 후방에서 언제든지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팀’이라는 뜻도 내포한다.

우조는 “블리처스 멤버들은 노래 실력과 랩, 춤, 프로듀싱, 외국어 능력까지 다재다능한 면모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들은 우조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프리 데뷔곡 ‘블리츠’와 ‘도화지’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각각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장윤정은 15일 그림동화책 ‘모두의 눈 속에 내가 있어요’를 발간한다. ‘모두의 눈 속에 내가 있어요’는 그와 두 아이 연우, 하영의 에피소드를 그림동화로 풀어낸 책이다.

장윤정, ‘모두의 눈 속에 내가 있어요’ 발간

연우·하영 에피소드 그림동화로 풀어낸 책



가수 장윤정이 동화 작가로 변신했다.

특히 제목 ‘모두의 눈 속에 내가 있어요’는 연우와의 에피소드에서 비롯됐다.

어느 날 장윤정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아들 연우가 “엄마 눈 속에 내가 있어요”라고 말한 에피소드에서 책 제목이 탄생했다.

장윤정은 평소 아이들과의 에피소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에 메모해왔다. 그는 책 발간에 앞서 “평소 저희 집 육아 교육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획 배경을 밝혔다.

박해진, ‘지금부터 쇼타임!’ 주연...카리스마 마술사

오는 8월말 촬영 예정

배우 박해진이 마술사로 변신한다.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는 3일 박해진이 오는 8월말 촬영 예정인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가제)에서 주인공 ‘차차웅’ 역을 맡았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쇼타임!’(가제)은 코믹 로맨스 귀신공조 수사극을 표방한다. 귀신들을 막 다두고 부리는 고용주이자 마술사인 차차웅과 신통력을 지닌 열혈 여순경과의 로맨스를 선보인다.

여기에 우연히 휘말린 사건 속 가려진 단서를 바탕으로 귀신들과 협력해 사건까지 풀어나가는 내용이다.

극 중 박해진이 연기할 차차웅은 서늘한 외모와 그보다 더 싸늘한 독설이 트레이드마크인 카리스마 넘치는 마술사다. 혼을 속 빼는 독보적인 마술 실력으로 방송과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마술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게다가 귀신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능력까지 지니, 귀신을 무서워하던 기존의 캐릭터들과 달리 귀신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는 능력자다. ‘지금부터 쇼타임!’(가제)은 현재 캐스팅을 진행 중이며, 방송국 및 편성 시기는 논의 중이다.